

세계 최대규모, 제12차 세계생체재료학술대회, 5월 대구 개최

✎ 권오경 기자 | ☎ 승인 2024.05.20 16:05

5월 26~31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

전 세계 약 60개국 4000여명 이상의 생체재료 분야 세계적 전문가들 대거 참여
인간의 질병 치료 및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제약, 재생의학, 진단 센서/칩 분야 등 폭넓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요소기술인 생체재료 분야의 현재와 미래 조망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1980년부터 4년마다 대륙을 순환하며 개최되는 생체재료 분야의 올림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12차 세계생체재료학술대회(WBC)를 한국생체재료학회(회장 나건, 가톨릭대학교 교수) 및 WBC 2024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박기동, 아주대학교 교수) 주관, 대구광역시, 한국관광공사 등 후원으로 5월 26일부터31일까지 대구 EXCO에서 국내 최초로 개최된다.

12년 만에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본 대회는 전 세계 64개국에서 4000 여명 이상의 생체재료분야 전문가들이 최신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예정으로 한국생체재료학회가 각고의 노력 끝에 대한민국에 유치해 개최하게 됐다.

박기동 조직위원장(아주대)을 필두로 구성된 본대회 조직위원회는 한동근(차의과학대) 김용희(한양대) 나건(가톨릭대, 한국생체재료학회 회장)의 공동조직위원장 및 박종철(연세대) 사무총장의 총괄하에 총 160여명의 대규모 조직으로 구성돼 본 대회 운영을 위해 약 8년간 준비를 진행했고, 한국생체재료학회의 응집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그간의 노력이 역대 최대규모 행사 개최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포스터. [사진=한국생체재료학회]

“생체재료의 융합은 미래 의료를 위한 비전(Convergence in Biomaterials: a vision for the future of healthcare)”이라는 주제로 대륙별 세계적 전문가들의 기조 강연 7편이 예정돼 있으며, 총 260개 이상의 심포지엄·구두 발표 세션, 워크숍 및 런천 세미나를 포함 4000여 편 이상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 강연으로는 텍사스 대학교 니콜라스 페파스 교수가 효과적인 질병 치료를 위해서 세포 및 생물 공학이 나노기술, 첨단 생체재료 및 분자 생물학과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런천 세미나 중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으로는 칩 위의 장기(Organ on a chip)와 유사장기모델(Organoid)이 미래에 생체 재료 및 약물의 규제 승인에 있어 기존의 체외 및 생체 내 테스트를 대체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루이 레이스 교수의 발제로 이뤄진다.

특히 생체재료 분야 최대규모의 국제학술대회 개최식에서 세계생체재료학회연합(IUSBSE)에서 지정하는 신임 펠로우로 한국생체재료학회 회원인 권오형(국립금오공대), 박귀덕(KIST), 박윤정(서울대 치대), 신흥수(한양대), 양성윤(충남대), 이수홍(동국대), 태기웅(GIST), 한세광(POSTECH) 교수가 지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동 분야 연구자가 세계대회에서 더욱 주목받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체,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110개 부스 이상의 전시회를 통해 국내기업의 홍보 및 글로벌 시장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네트워크 조성의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본 대회 기간 중 환영연과 만찬 등의 사교 프로그램 외에도 K-POP 댄스 및 태권도 클래스 등 해외 참가자들이 다양한 한국의 K-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콘텐츠, 투어 프로그램이 운영돼 64개국 참가자 만족도를 증대할 예정이다.

한국생체재료학회는 본 세계대회 개최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개최 역량과 학술 성과를 보여주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권오경 기자 kok7201@naver.com